

#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

우성호·이성근\*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280 영남대학교 법정관)

## Factors Influencing Decision Making of People Migrated to Rural Area for Farming

- Case of Gyeongsangbuk-do -

Seong-Ho Woo · Seong-Keun Le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Welfare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cision-making factors of people who have returned to rural areas for farming and residenc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reg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20 return farmers of six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from September 1st to October 11th 2013. For data analysis, researchers used 280 answered sheets and utilized two-way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ree factors of returning to farm which are pull to rural area, push from city, and policy factor. The highest scores of factor is pull to rural area (2.93), the second one is push from city (2.31), and the lowest score is politic factor (2.18). In addition, these three factors of returning to farm are elucidated by environmental variable, economic variable, and information and opportunity provided by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factor of pull to rural area is related environmental variable and the factor of push from city is affected by economic variable. Lastly, politic factor pertains to information and opportunity provided by government.

**Key words:** urban to rural migration, push-and-pull theory, decision-making factor

## 1. 서론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히 근대화되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은 산업화, 도시화를 수반하였고 50여년간 지속적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라는 상반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이러한 도농 간의 인구이동 양상은 역전되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이른바 이도향촌현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3)에 의하면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0,503가구, 2012년 27,008가구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연간 258%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증가추세는 경제 불황에 따른 도시일자리 부족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환경 심리적 요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라는 인구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주요어: 귀농·귀촌, 압출흡인이론, 의사결정요인

\* 교신저자(이성근) 전화: 053-810-2682 e-mail: SKL2682@ynu.ac.kr

있을 것이다.

인구이동에 있어서 이촌향도보다 이도향촌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반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귀농·귀촌 현상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민들의 주택수요 및 자산운용 행태에 변화를 가져 왔고 도시계획 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수요 증대와 인구의 질적 또는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귀농·귀촌 현상은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마을의 과소화 및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에는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제도 마련을 위해서 2011년 4월 ‘귀농인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을 지역발전의 핵심적 과제로 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유도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순기능을 살리고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전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귀농·귀촌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연구는 ‘누가, 왜, 어디로 귀농·귀촌하는가?’ 하는 3대 문제 중 ‘누가, 왜 귀농·귀촌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동결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도시압출요인 및 농촌흡인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들 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즉, 도시압출요인 및 농촌흡인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요인별 유사성을 고려한 재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개인 특성별,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 단계의 분석절차를 통해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첫째, 귀농·귀촌자들이 도시압출요인, 농촌흡인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는지 분석한다. 둘째, 집단간평균분석을 이용해 개인특성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의 차이는 어떠한지 분석한다. 셋째, 다항로지스틱 분석으로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첫째,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을 도시압출요인, 농촌흡인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은 각각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3년 이후 9,348 가구가 귀농·귀촌한 경상북도의<sup>1)</sup> 6개 시·군(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으로 설정하였다.

이주한 귀농·귀촌자들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귀농·귀촌지역별 공간적 특성과 분포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의 도농간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관점일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로서도 귀농·귀촌자를 당해지역으로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도시민 농촌유치 및 정착 정책을 추진하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귀농·귀촌의 개념규정과 유형

#### 2.1.1. 귀농·귀촌의 개념규정

귀농·귀촌의 개념은 학자들의 분석관점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이주는 귀농과 귀촌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귀농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귀촌은 농업에 종사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김정섭, 2009). 귀농과 귀촌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과 귀촌의 개념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는 경우(강대구, 2006; 고성준, 2007)와 귀촌을 귀농에 포함시키는 경우(유정규, 1998; 김상균 2012; 서규선 & 변재면, 2000)와 귀농을 귀촌에 포함시키는 경우(이병철, 1999; 이시자, 2010; 박기서, 2012)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개념규정을 선행연구에서의 논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념정의,<sup>2)</sup> 그리고 최근 귀농자보

1)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농·귀촌 가구 수는 경상북도가 9,348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8,429가구, 강원도 7,350가구, 경상남도 6,568가구, 전라북도 6,455가구, 전라남도 6,137가구, 충청북도 5,714가구, 충청남도 3,907가구, 제주도 742가구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다는 협의의 귀촌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에서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돌아오는 것 즉, 주된 주거지를 도시<sup>3)</sup>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광의의 귀촌’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광의의 귀촌에는 귀농과 협의의 귀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귀농·귀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귀농·귀촌’은 농업종사 여부에 따라 ‘귀농’과 ‘협의의 귀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귀농’과 ‘귀촌’을 정의하면 ‘귀농’은 영농을 주된 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협의의 귀촌’은 영농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귀농·귀촌의 흐름을 보면 기존에는 귀농자의 수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귀촌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귀촌을 영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귀농과 영농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거주가 주된 목적인 협의의 귀촌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귀농·귀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1.2. 귀농·귀촌의 유형

일차적으로 귀농과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왔다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유형은 전통적인 인구이동 유형,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데 고향으로 이주하는가와 타향으로 이주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고(서규선 & 변재면, 2000; 박공주, 2006; 이명호 외, 2013), 귀농·귀촌의 정착형태로 구분(유학열, 2011)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인구의 공간적인 이동과 귀농·귀촌전 농촌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면, U-turn형, J-turn형, I-turn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U-turn 형은 과거에 농촌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도시로 이주한 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귀농의 전형적인 형태를 말한다. 둘째, J-turn 형은 U-turn 형의 변형으로서 과거 농촌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지만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귀농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I-turn 형은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한다. I-turn 형 중에서도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유형과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전자는 귀농으로 판단하고 후자는 단지 귀촌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U-turn형과 J-turn형은 농촌생활 경험자로 주로 귀농의 성격이 강하며, I-turn형은 농촌경험이 없는 자로 귀농자보다 귀촌자의 성격이 강하다.

박공주(2006)는 이들 유형별로 농촌이주 준비과정과 적응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첫째, 농촌이주 준비과정을 보면 U-turn형은 경제적 여건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귀농의 직접적 동기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J-turn형과 I-turn형은 농촌이 좋아서라는 이상적 전원생활동경이 동기요인이 되어 귀농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였다. 둘째, 농촌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U-turn형과 I-turn형은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형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I-turn형은 교육수준이 타 유형보다 높지만 농촌생활 경험이 없어 다른 유형보다는 비현실적, 이상적 전원생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농촌 적응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의 심각성과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강대구(2006)는 이들 귀농 유형별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U-turn형 귀농자는 운영자금 문제, J-turn형 귀농자는 재배기술문제 및 자금문제, I-turn형 귀농자는 재배기술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U-turn형은 자금 활용 교육, J-turn 형 및 I-turn 형은 재배 관련 기술교육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U-turn형 귀농자에게는 영농능력을 고려해 자금의 획기적 지원과 지원 시 일괄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학열(2011)은 귀농·귀촌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를 기초로하여 정착형태별로 귀농·귀촌유형을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귀농유형은 농사만 짓는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업이외의 일을 겸하는 겸업귀농형,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형으로 구분되고, 귀농·귀촌유형은 도시출퇴근형, 주말농부형(5도 2촌), 전원생활형, 노후휴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열(2011)의 연구는 인구지리학적 분석이나 후속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

2)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귀농·귀촌 정책방향'에서 '협의의 귀농'과 '협의의 귀촌'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전자는 영농을 제1의 목적으로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후자는 영농을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협의의 귀촌과 협의의 귀농을 묶어 '광의의 귀촌'으로 보고, 이는 어떤 분야(농업분야-귀농, 비농업분야-귀촌)에 삶을 영위할 것인가는 2차적인 문제이며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3) 본 연구에서 도시라함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를 말하며, 연구대상은 광역시에 거주하다 시·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로 설정하였다.

유형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오수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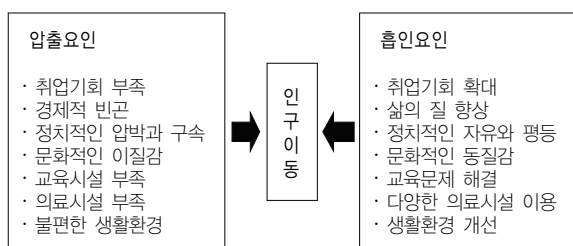
## 2.2. 귀농 · 귀촌의 의사결정요인

귀농 · 귀촌의 의사결정은 인구이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구이동 이론은 대부분 이동의 원인에 관한 것이며,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루는 이론이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인구이동의 원인과 관련된 이론은 이를 지역 인구이동의 거시적 흐름을 통해 파악하는 거시적 이론과 이동주체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인구이동을 파악하는 미시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이론은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 Lee의 압출흡인 이론, 지리적 중력모형, Stouffer의 개입기회모형 등이 있다(조혜중, 2006). 한편 미시적 이론은 개인의 이주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 결정요인을 개인 및 가구의 특성 혹은 행태적인 측면과 연관지어 분석한다. 미시적 이론은 Sjaastad(1962)에서 출발하여 Davanzo(1980)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들 중 Wolpert(1965)는 인구이동을 이주자의 행태적 측면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장소의 효용성, 장이론, 생애주기를 중심 개념으로 하고 이동행태를 분석하였다(조혜중, 2006).

통상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인구이동의 원인을 흡인요인과 압출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요인들을 가리켜 ‘압출요인’이라고 하며 그 반대로 목표지에서 사람들을 끄는 힘을 ‘흡인요인’이라고 한다. 어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건이 열악하면 이것을 인구를 밀어내는 압출요인으로 보고, 그와 반대로 지역 여건이 양호하면 이것을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 간 이주요인을 중심으로 개념화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이 압출흡인이론은 지역간 인구이동을 유출지의 압출요인과 유입지의 흡인요인 상호간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종래에는 주로 이촌향도형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그림 1> 기존 인구이동의 압출요인과 흡인요인

인구이동요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적용방향은 지역간 인구이동의 흐름이 역전되면서 이도향촌형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요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용되었다.

## 2.3. 선행연구 검토

### 2.3.1.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

우선 인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인구이동과 교육수준 그리고 나이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Schwartz(1973)의 연구, 소비에 기초한 인구이동모형을 제시한 Graves & Linneman(1979)의 연구, 그리고 임금과 인구이동률의 관계를 분석한 Goss & Schoening(1984), Goss & Paul(1990) 등이 있다.

인구이동의 도시압출요인으로 서규선 & 박덕병(1997)은 도시의 소음, 탁한 공기, 오염된 식수, 높은 범죄율, 물가, 주택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등이 귀농 · 귀촌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임혜영(1999)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시압출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종현(1997)은 도시 적응 실패, 조록환(1998)은 저소득 등 경제적인 요인이 귀농 · 귀촌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유정규(1998)는 도시소득미흡, 도시생활의 염증, 노후대비, 사업실패, 이상용(1999)은 실직과 도시에서의 저소득, 정철영(1999)는 도시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이정관(1998)은 도시소득 미흡 및 실증, 사업실패 등이 귀농 · 귀촌 결정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강대구(2010)는 귀농 · 귀촌자를 도시주거환경에 대한 실증과 직업문제, 사업실패, 실직 등의 부정적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사람으로 지적하면서 이들을 소극적 귀농집단(도시의 단점을 보고 이주한 집단), 적극적 귀농집단(농업과 농촌의 장점을 보고 이주한 집단), 중립적 집단으로 분류하고 귀농 · 귀촌자의 40% 정도는 적극적 귀농집단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상균(2012)은 도시압출요인으로 일자리, 실직 및 사업실패, 환경오염, 높은 물가, 주택문제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도시압출요인의 선행연구들은 귀농 · 귀촌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시에서의 경제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높은 물가 및 주택난 등의 도시생활비,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 그리고 삭막한 인간관계 등 도시생활 전반에 대한 회의와 같은 주관적인 인식이 귀농 · 귀

촌 의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도시압출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이동의 농촌흡인요인으로 Williams & Jobs(1990)은 경제적 안정, 환경, 자연, 삶의 질 등을 주장하였다. 농촌이주 결정요인의 경우 전출지의 압출요인보다는 전입지의 유인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이희찬 & 김현, 2006)이 유력하다. 농촌흡인요인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정관(1998)은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 건강관리, 노후대비 등을 농촌흡인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박은경(2008)은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건강관리를, 박영일(1998)은 전원생활, 영농승계, 노후대책을, 정철영(1999)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농업의 발전가능성 등이 귀농·귀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윤순덕(2005)은 농촌흡인요인으로 자연경관, 연고지를 설정하였다. 이광석(1997)은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사람과 노후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일 경우 농촌을 장래의 주거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미령(2006), 김정호 & 마상진(2006)의 연구에서도 농촌출신이면서 영농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농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희찬 & 김현(2006)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요인을 농촌기반요인, 농촌자연요인, 도시환경요인, 취업환경요인, 농촌경험요인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이 중에서 농촌기반과 취업환경 요인들이 농촌으로의 이주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인현(2011)은 귀농을 창업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귀농에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귀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창출문제, 자녀양육문제, 농사기술습득문제, 의료복지시설부족이 귀농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은 귀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균(2012)은 농업에 대한 전망,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전원생활에의 동경, 웰빙 생활과 건강문제, 연고지 또는 고향생활 등 다섯 가지를 농촌흡인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결정에는 경제적 안정성, 건강관리, 자연환경, 그리고 농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주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거주경험이나 영농경험이 농촌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과 농촌으로 흡인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는 있으나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요인별 유사성을 고려한 분류가 필요하다. 각각의 요인을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면 대체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선행연구의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요인별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

도시압출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일자리	사업	실직	물가	주택난	스트레스	범죄율	도시불만족	식수	환경오염
서규선(1997)	-	-	-	○	○	○	○	○	○	○
유정규(1998)	○	○	-	-	-	-	-	○	-	-
이정관(1998)	○	○	-	-	-	-	-	○	-	-
강대규(2010)	○	○	○	-	-	-	-	○	-	-
오수호(2012)	-	○	○	-	-	-	-	○	-	-
손능수 외(2012)	○	-	-	○	-	-	-	○	-	○
김상균(2012)	○	○	○	○	○	-	-	-	-	○

농촌흡인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농업전망	영농승계	일자리	생활비	자녀교육	연고지	가족동의	자연환경	생태적살	건강
이정관(1998)	○	○	-	○	-	-	-	-	-	○
서규선외(2000)	-	-	-	○	-	-	-	○	○	-
이희찬외(2000)	○	-	-	-	-	○	-	-	○	-
김성수외(2004)	-	○	-	-	-	-	-	-	○	○
윤순덕(2005)	-	-	-	-	-	○	-	○	-	-
남인현(2011)	○	-	-	-	-	-	-	-	○	-
오수호(2012)	○	-	-	-	-	-	-	○	○	○
손능수 외(2012)	○	-	○	○	○	-	○	-	○	○
김상균(2012)	○	-	-	-	-	○	-	○	○	○



사업실패, 퇴직, 물가,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 자녀교육, 인간관계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농촌흡인요인으로는 생태적 삶, 건강, 자연환경, 연고지, 자녀교육, 농업전망, 친환경농업 추구, 영농승계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정부정책요인으로는 정보제공, 절차간소화, 영농교육, 정착지원, 영농지원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이래 누적 귀농·귀촌가구 9,348가구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중에서도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조사와 경상북도 도청 및 관계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의 귀농·귀촌자 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42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306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72.9%). 회수된 설문지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활용률 91.5%).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세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를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집단간평균분석을 이용하여 개인특성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확장한 개념으로 로짓계수를 추정하여 특정 범주를 선택할 확률 또는 특정 범주에 소속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종류가 3개 이상이므로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특정 사건과 대비하여 산출한다. 이때 특정사건을 기준사건이라 하고 기준사건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산출하고자하는 대상에 중점을 두고 기준사건을 결정한다.

만약 기준사건이 C라면 A와 C, B와 C를 대비시키게 된다. 이때 이를 적용한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와 C를 대비시키는 식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A}{P_C}\right) = b_{A0} + b_{A1}X_{A1} + b_{A2}X_{A2} + \dots + b_{Ak}X_{Ak} \quad \text{---- (식1)}$$

B와 C를 대비시키는 식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B}{P_C}\right) = b_{B0} + b_{B1}X_{B1} + b_{B2}X_{B2} + \dots + b_{Bk}X_{Bk} \quad \text{---- (식2)}$$

따라서 종속변수가 n개 있다면 n-1개의 식이 필요하다. 다항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각 식의 다항 로짓계수 b를 모두 추정해야 한다.

여기서 A와 B를 대비시키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식(3)을 적용한다.

$$\ln\left(\frac{P_A}{P_B}\right) = b_{A0} + b_{A1}X_{A1} + b_{A2}X_{A2} + \dots + b_{Ak}X_{Ak} \quad \text{---- (식3)}$$

$$- (b_{B0} + b_{B1}X_{B1} + b_{B2}X_{B2} + \dots + b_{Bk}X_{Bk})$$

귀농·귀촌 선택의 원인분석은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여 귀농, 귀촌, 귀농귀촌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자 i가 귀농지역 R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Prob(y = R) = \frac{\exp(x_i l \beta_j)}{1 + \sum_{k=1}^J (x_i l \beta_k)} \quad \text{---- (식4)}$$

여기서 R=0, 1, 2, ..., R. 이다.

## 4. 분석결과

### 4.1. 귀농·귀촌자 개인특성

설문응답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영주시 71명(25.4%), 영천시 54명(19.3%), 상주시 57명(20.4%), 의성군 19명(6.8%), 청도군 24명(8.6%), 봉화군 55명(19.6%)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은 남성이 179명(64.6%), 여성이 99명(35.6%)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98명(35.6%), 99명(36.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142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114명, 40.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자들이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상주시

(48명, 84.2%)의 경우 대졸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경력 즉, 귀농·귀촌 전 직업은 회사원(30.0%), 자영업(27.9%), 전문직 (18.9%), 공무원(9.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적으로는 상주시와 의성군의 경우 회사원출신이 47.4%, 42.1%로 특히 높았고 봉화군은 전문직출신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영천시는 공무원출신이 2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응답자들의 귀농·귀촌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시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한 I턴형이 130명(46.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농촌출신이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J턴형이 80명

(28.6%), 고향으로 이주한 U턴형이 70명(25.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자들이 귀촌 전에 거주하였던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거주자가 124명(44.9%)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 48명(17.4%), 대구시 46명(16.7%), 부산·울산·경남이 43명(1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대전·충남·충북지역은 6명(2.2%), 광주·전남·전북 4명(1.4%), 강원 3명(1.1%), 제주 2명(0.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의 경우 수도권권으로부터의 이주가 73.2%, 64.3%, 50.9%로 과반수였으나,

〈표 3〉 귀농·귀촌자의 개인특성

(단위 : 명, %)

구 분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	전체
성별	남성	54(76.1)	32(61.5)	34(59.6)	15(78.9)	17(70.8)	27(49.1)	179(64.4)
	여성	17(23.9)	20(38.5)	23(40.4)	4(21.1)	7(29.2)	28(50.9)	99(35.6)
	계	71(100.0)	52(100.0)	57(100.0)	19(100.0)	24(100.0)	55(100.0)	278(100.0)
연령	30대	6(8.8)	3(5.7)	5(8.8)	1(5.3)	2(8.3)	6(11.1)	23(8.4)
	40대	15(22.1)	11(20.8)	35(61.4)	6(31.6)	4(16.7)	37(50.0)	98(35.6)
	50대	26(38.2)	24(45.3)	12(21.1)	9(47.4)	10(41.7)	18(33.3)	99(36.0)
	60세 이상	21(30.9)	15(28.3)	5(8.8)	3(15.8)	8(33.3)	3(5.6)	55(20.0)
	계	68(100.0)	53(100.0)	57(100.0)	19(100.0)	24(100.0)	54(100.0)	275(100.0)
학력	무학	1(1.4)	0(0.0)	0(0.0)	0(0.0)	0(0.0)	0(0.0)	1(0.4)
	초졸	5(7.0)	2(3.7)	0(0.0)	0(0.0)	0(0.0)	1(1.8)	8(2.9)
	중졸	5(7.0)	4(7.4)	1(1.8)	3(15.8)	1(4.2)	1(1.8)	15(5.4)
	고졸	35(49.3)	26(48.1)	8(14.0)	9(47.4)	11(45.8)	25(45.5)	114(40.7)
	대졸 이상	25(35.2)	22(40.7)	48(84.2)	7(36.8)	12(50.0)	28(50.9)	142(50.7)
	계	71(100.0)	54(100.0)	57(100.0)	19(100.0)	24(100.0)	55(100.0)	280(100.0)
경력	공무원	9(12.7)	11(20.4)	3(5.3)	2(10.5)	0(0.0)	2(3.6)	27(9.6)
	회사원	20(28.2)	10(18.5)	27(47.4)	8(42.1)	5(20.8)	14(25.5)	84(30.0)
	전문직	11(15.5)	11(20.4)	8(14.0)	3(15.8)	4(16.7)	16(29.1)	53(18.9)
	자영업	23(32.4)	16(29.6)	11(19.3)	4(21.1)	9(37.5)	15(27.3)	78(27.9)
	생산직	1(1.4)	4(7.4)	0(0.0)	1(5.3)	1(4.2)	2(3.6)	9(3.2)
	군인	1(1.4)	0(0.0)	0(0.0)	0(0.0)	1(4.2)	0(0.0)	2(0.7)
	노무직	2(2.8)	1(1.9)	0(0.0)	0(0.0)	0(0.0)	2(3.6)	5(1.8)
	기타	4(5.6)	1(1.9)	8(14.0)	1(5.3)	4(16.7)	4(8.2)	22(7.9)
계	71(100.0)	54(100.0)	57(100.0)	19(100.0)	24(100.0)	55(100.0)	280(100.0)	
귀농 귀촌 유형	U턴형	13(32.2)	22(36.1)	3(5.0)	7(36.8)	10(37.0)	9(16.7)	70(25.0)
	J턴형	22(37.3)	24(39.3)	8(13.3)	4(21.1)	5(18.5)	17(31.5)	80(28.6)
	I턴형	18(30.5)	15(24.6)	49(81.7)	8(42.1)	12(44.4)	28(51.9)	130(46.4)
	계	59(100.0)	61(100.0)	60(100.0)	19(100.0)	27(100.0)	54(100.0)	280(100.0)
전거 주지	서울경기	45(64.3)	5(9.3)	41(73.2)	3(15.8)	3(12.5)	27(50.9)	124(44.9)
	부산경남	4(9.3)	11(20.4)	4(7.1)	5(26.3)	7(29.2)	12(22.6)	43(15.6)
	대구	4(5.7)	22(40.7)	3(5.4)	4(21.1)	8(33.3)	5(9.4)	46(16.7)
	경북내	12(17.1)	14(25.9)	5(8.9)	6(31.6)	6(25.0)	5(9.4)	48(17.4)
	기타	5(7.1)	2(3.8)	3(5.4)	1(5.3)	0(0.0)	4(7.6)	15(5.4)
계	70(100.0)	54(100.0)	56(100.0)	19(100.0)	24(100.0)	53(100.0)	276(100.0)	



상대적으로 경북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가까운 영천시, 청도군과 경북 중부지역에 위치한 의성군의 경우 대구경북권내 이주가 66.6%, 58.3%, 52.7%로 과반수였다. 한편 부산·경남권으로부터의 이주는 청도 29.2%, 의성 26.3%, 영천 20.4% 순으로 높아 위치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4.2. 귀농·귀촌자의 개인특성별 의사결정요인

### 4.2.1. 도시입출요인

귀농·귀촌자 개인특성별로 도시입출요인에 의한 의사결정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일자리와 직장퇴직 등 경제적 요인이 여성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로는 경제적 요인은 5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퇴직(3.01)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는 도시의 환경문제를 제외한 전 요인에서 50세미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경제적 요인의 주택문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거주지 집단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차이는 사업실패, 직장퇴직, 주택문제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자녀의 교육문제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귀농·귀촌 유형별로는 경제적 요인의 경우 직장퇴직과 주택문제,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서 자녀의 교육문제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표 4) 귀농·귀촌자의 개인특성별 도시입출요인의 집단 간 차이분석(t-test, ANOVA)

구 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일자리부족	사업실패	직장퇴직	높은물가	주택문제	교육문제	인간관계	교통문제	환경문제	
성별	여성	1.67	1.60	2.00	2.39	2.15	2.13	3.06	2.24	3.19
	남성	1.96	1.65	2.69	2.20	2.14	2.07	3.03	2.12	2.99
	t값	-2.02	-0.43	-3.53	1.21	0.48	0.33	0.15	0.72	1.06
	유의수준	0.04**	0.67	0.00**	0.23	0.96	0.74	0.88	0.47	0.29
연령	50세미만	1.72	1.75	1.74	2.42	2.38	2.73	3.23	2.40	3.20
	50세이상	1.97	1.54	3.01	2.15	1.96	1.58	2.90	1.98	2.96
	t값	-1.78	1.68	-7.15	1.76	2.68	7.13	1.89	2.60	1.38
	유의수준	0.08*	0.09*	0.00**	0.08*	0.01**	0.00**	0.06*	0.01**	0.17
학력	고졸이하	2.18	1.73	2.86	2.50	2.59	1.73	3.18	2.09	3.18
	대학이상	1.83	1.62	2.41	2.25	2.11	2.12	3.03	2.17	3.05
	t값	1.35	0.44	1.28	0.87	1.67	-1.23	0.47	-0.27	0.38
	유의수준	0.18	0.66	0.20	0.38	0.09*	0.22	0.64	0.79	0.70
전거주지	수도권	1.69	1.47	2.17	2.38	2.27	2.45	3.23	2.26	3.15
	대구경북	2.02	1.66	2.89	2.10	1.87	1.84	2.90	1.96	2.92
	기타	1.90	1.90	2.23	2.34	2.36	1.82	2.92	2.31	3.15
	F값	2.19	3.48	6.53	1.34	3.68	6.39	1.69	1.89	0.73
유의수준	0.11	0.03**	0.00**	0.25	0.03**	0.00**	0.19	0.15	0.48	
귀농 귀촌 유형	U턴형	1.97	1.81	2.74	2.26	2.23	1.71	2.91	2.33	3.03
	J턴형	1.90	1.64	2.86	2.09	1.83	1.81	3.05	1.80	2.88
	I턴형	1.77	1.53	2.03	2.38	2.30	2.47	3.11	2.30	3.20
	F값	0.75	1.66	8.79	1.31	3.51	8.64	0.40	4.25	1.20
	유의수준	0.47	0.19	0.00**	0.27	0.03**	0.00**	0.67	0.02**	0.30
전직업	공무원·전문직	1.89	1.59	2.67	2.20	2.07	2.01	2.95	2.12	3.12
	회사원	1.70	1.42	2.41	2.33	2.28	2.20	3.18	2.20	3.17
	자영업·기타	1.97	1.86	2.30	2.26	2.09	2.06	2.99	2.16	2.92
	F값	1.38	4.42	1.33	0.22	0.72	0.43	0.66	0.09	0.77
유의수준	0.25	0.01	0.27	0.80	0.49	0.65	0.52	0.92	0.47	

\* : p < 0,1, \*\* : p < 0,05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도시의 교통문제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2. 농촌흡인요인

귀농·귀촌자 개인특성별로 농촌흡인요인에 의한 의사결정 차이를 검증한 결과연령의 사회적 요인인 연고지, 자녀의 교육문제, 주변사람의 권유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거주지별로는 경제적 요인은 영농승계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전 요인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적 요인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농·귀촌 유형별로 경제적 요인은 영농승계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회적 요인의 경우 전 요인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생태적 삶의 추구하고 농촌의 자연환경이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전직업별로는 사회적 요인의 자녀교육문제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3.3. 정책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 외에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자 개인특성별 정책적 요인의 차

〈표 5〉 귀농·귀촌자의 개인특성별 농촌흡인요인의 집단 간 차이분석(t-test, ANOVA)

구 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농업전망 기대	친환경 농업	영농 승계	연고지	교육 문제	주변 권유	생태적 삶	건강 도움	자연 환경	
성별	여성	2,15	3,16	1,69	2,38	2,19	2,16	4,07	4,20	4,18
	남성	2,34	3,11	1,81	2,65	2,26	2,12	3,91	4,06	4,29
	t값	-1,24	0,29	-0,85	-1,35	-0,35	0,25	1,17	1,11	-0,87
	유의수준	0,22	0,77	0,39	0,18	0,72	0,81	0,24	0,27	0,39
연령	50세미만	2,36	3,06	1,73	2,34	2,95	2,35	3,94	4,05	4,17
	50세이상	2,21	3,18	1,79	2,72	1,67	1,97	3,99	4,15	4,32
	t값	1,07	-0,69	-0,51	-2,07	7,66	2,48	-0,38	-0,83	-1,23
	유의수준	0,29	0,49	0,61	0,04**	0,00**	0,01**	0,70	0,41	0,22
학력	고졸이하	2,32	3,14	2,00	3,64	2,14	2,05	3,68	4,27	4,36
	대학이상	2,27	3,13	1,74	2,46	2,24	2,14	3,99	4,09	4,24
	t값	0,17	0,03	1,02	3,46	-0,32	-0,35	-1,22	0,76	0,52
	유의수준	0,86	0,98	0,31	0,00**	0,75	0,73	0,22	0,45	0,60
전거주지	수도권	2,26	3,11	1,59	2,28	2,64	2,15	3,99	4,17	4,32
	대구경북	2,25	3,13	1,87	2,78	1,89	1,92	4,02	4,05	4,22
	기타	2,34	3,16	1,92	2,69	2,03	2,46	3,82	4,08	4,20
	F값	0,13	0,03	2,47	3,17	7,54	3,43	0,66	0,38	0,38
유의수준	0,88	0,97	0,08*	0,04**	0,00**	0,03***	0,52	0,68	0,68	
귀농 귀촌 유형	U턴형	2,30	2,87	2,27	3,89	2,04	2,14	3,67	3,96	4,00
	J턴형	2,05	3,15	1,60	2,40	1,78	1,84	3,98	4,06	4,31
	I턴형	2,40	3,25	1,59	1,93	2,62	2,32	4,12	4,22	4,35
	F값	2,04	1,74	10,06	48,84	8,80	3,51	3,59	1,46	2,94
유의수준	0,13	0,18	0,00**	0,00**	0,00**	0,03**	0,03**	0,24	0,06*	
전직업	공무원·전문직	2,17	3,11	1,84	2,47	2,14	2,12	4,12	4,22	4,31
	회사원	2,23	3,11	1,62	2,57	2,53	2,20	3,98	4,08	4,32
	자영업·기타	2,40	3,16	1,83	2,61	2,05	2,09	3,83	4,05	4,14
	F값	0,96	0,05	1,09	0,18	2,64	0,21	1,56	0,65	0,94
유의수준	0,39	0,95	0,34	0,83	0,07*	0,81	0,21	0,52	0,39	

\* : p < 0,1, \*\* : p < 0,05

〈표 6〉 귀농·귀촌자의 개인특성별 정책적 요인의 집단 간 차이분석(t-test)

구 분	정책적 요인					
	정보 및 기회제공			정부지원		
	정부의 정보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훈련의 도움	농촌정책 지원	영농활동 지원	
성별	여성	2,15	2,01	2,59	2,14	2,06
	남성	2,28	2,20	2,49	2,17	2,19
	t값	-0,90	-1,49	0,62	-0,17	-0,96
	유의수준	0,37	0,14	0,53	0,86	0,34
연령	50세미만	2,11	2,14	2,52	2,24	2,21
	50세이상	2,33	2,13	2,53	2,09	2,10
	t값	-1,61	0,02	-0,01	1,13	0,85
	유의수준	0,11	0,98	0,99	0,26	0,39
학력	고졸이하	2,41	2,05	2,50	1,95	1,77
	대학이상	2,22	2,14	2,53	2,17	2,18
	t값	0,78	-0,42	-0,10	-0,88	-1,66
	유의수준	0,44	0,67	0,92	0,38	0,09*
전거 주지	수도권	2,03	2,02	2,33	2,03	1,97
	대구경북	2,39	2,20	2,67	2,22	2,27
	기타	2,34	2,26	2,66	2,31	2,26
	F값	3,30	1,39	2,54	1,53	2,46
	유의수준	0,04**	0,25	0,08*	0,22	0,09*
귀농 귀촌 유형	U턴형	2,17	2,01	2,31	2,07	2,04
	J턴형	2,20	2,18	2,48	2,06	2,10
	I턴형	2,28	2,18	2,67	2,26	2,23
	F값	0,28	0,63	2,06	1,05	0,76
	유의수준	0,75	0,53	0,13	0,35	0,47
전직업	공무원·전문직	2,37	2,22	2,40	2,29	2,27
	회사원	2,12	2,01	2,54	2,04	2,05
	자영업·기타	2,22	2,18	2,62	2,15	2,13
	F값	1,18	1,03	0,75	1,06	0,81
	유의수준	0,31	0,36	0,47	0,35	0,45

\* : p < 0,1, \*\* : p < 0,05

이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요인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학력집단간의 정부지원요인 중 영농활동요인이 유의수준 0.1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전 거주지별로 정부의 정보 및 기회제공의 경우, 정부의 귀농·귀촌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의 도움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지원요인 중에서는 정부의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유형과 전 직업별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

#### 4.3.1 모형요약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 및 지역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검정을 이용한다.  $\chi^2$  통계량은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통계값이 크면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에서는 231.907로 나타났으며 최종모형의 유의확률 또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므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모형이 유의미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8〉 귀농·귀촌 지역선택 모형의  $\chi^2$  검정 통계량

모형	-2 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927.433	-	-	-
최종모형	695.526	231.907	90.000	0.000

‘Cox와 Snell의 R-제곱’과 ‘Nagelkerke R-제곱’은 회귀분석의  $R^2$ 에 비유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체로 종속변수 분산의 56.3%~58.2%가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표 9〉 귀농귀촌 지역선택 모형의 적합도

Cox와 Snell	Nagelkerke	McFadden
0,563	0,582	0,241

〈표 10〉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 모수 추정치

구 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영주시	절편	1,295	1,181	1,204	.273
	도시에서 직장퇴직	.479	.187	6,543	.011
	도시의 주택문제	.903	.429	4,437	.035
	농촌생활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639	.387	2,729	.099
	농업전망이 밝아보여서	-.508	.259	3,837	.050
영천시	절편	-6,150	1,900	10,480	.001
	도시에서 직장퇴직	.654	.198	10,938	.001
	도시의 환경문제	.478	.246	3,764	.052
	쾌적한 자연환경에 살고 싶음	.842	.498	2,864	.091
	연고지 또는 고향에 살고 싶어서	.471	.214	4,828	.028
	자녀를 농촌에서 교육시키려고	-.814	.304	7,162	.007
	농업전망이 밝아보여서	-.723	.295	6,014	.014
	영농승계를 위해	.849	.330	6,615	.010
	농촌생활 관련 교육훈련이 도움 되어서	.747	.330	5,131	.023
	정부의 농촌정책지원이 도움 되어서	1,003	.497	4,071	.044
정부의 영농활동지원이 도움 되어서	-1,206	.509	5,606	.018	
상주시	절편	-4,207	1,852	5,164	.023
	도시에 일자리가 없음	.981	.408	5,764	.016
	도시에서 사업실패	-1,342	.420	10,196	.001
	자녀의 교육문제	.696	.257	7,361	.007
	농촌생활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1,528	.556	7,551	.006
	연고지 또는 고향에 살고 싶어서	-.641	.256	6,276	.012
	가족 또는 친구가 농촌생활 권유	.607	.251	5,831	.016
	농업전망이 밝아보여서	-.508	.308	2,721	.099
의성군	영농승계를 위해	.697	.378	3,394	.065
	절편	1,443	2,105	.470	.493
	도시에서 사업실패	-1,068	.583	3,356	.067
	도시에서 직장퇴직	.585	.309	3,582	.058
	도시의 교통문제	-1,239	.719	2,970	.085
	연고지 또는 고향에 살고 싶어서	.709	.315	5,059	.024
	친환경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려고	-.855	.393	4,732	.030
	영농승계를 위해	1,159	.482	5,774	.016
	정부의 영농활동지원이 도움 되어서	1,750	.806	4,715	.030

### 4.3.2. 분석결과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추정 결과 귀농·귀촌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주시를 선택한 귀농·귀촌자들의 의사결정요인은 직장 퇴직, 주택문제, 건강, 농촌의 장래 전망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의 영향요인은 직장퇴직, 고향으로 귀향, 자녀의 농촌교육, 농촌의 장래 전망, 영농승계,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되어, 정부의 영농활동 지원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도시의 일자리 부족, 사업실패, 자녀의 교육상 문제, 건강, 고향으로 귀향, 농촌생활에 대한 주변의 권유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고향으로 귀향, 친환경 농업, 영농승계, 정부의 영농활동 지원으로 나타났다. 청도군은 주택문제, 자녀의 교육상 문제,

(표 10 계속)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절편	1.978	1.432	1.907	.167
도시의 주택문제	-2.377	.763	9.707	.002
자녀의 교육문제	.963	.421	5.229	.022
도시생활이 삭막해서	-.595	.276	4.625	.032
자녀를 농촌에서 교육시키려고	-1.760	.506	12.107	.001
영농승계를 위해	1.077	.416	6.707	.010
정부의 농촌정착지원이 도움 되어서	-1.983	.762	6.766	.009

주. 참조 범주는 분석대상지역 중 가장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는 봉화군을 선정함. 전체 23개 변수 중 유의미한 변수만 표에 제시함.

도시생활의 부정적 요인, 자녀의 농촌교육, 영농승계, 정부의 농촌 정착 지원으로 나타났다.

#### 4.5. 분석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으로 도시압출요인, 농촌흡인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력과 개인특성 및 지역별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압출요인은 평균 2.31, 농촌흡인요인은 2.93, 정책적 요인은 2.18로 농촌흡인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시압출요인에서는 환경오염(평균 3.09)과 삭막한 인간관계(평균 2.99), 퇴직(평균 2.47), 높은 물가(평균 2.3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농촌흡인요인으로는 건강에 기여(평균 4.13), 쾌적한 자연환경(평균 4.22), 생태적인 삶의 추구(평균 3.95),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평균 3.06)의 순으로 자연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들의 가치관이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농촌공간이 대안적 거주공간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의 경우, 응답자들은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이 도움된다(평균 2.43), 정부에서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잘 제공해주어서(평균 2.17), 행정절차 간소화(평균 2.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귀농·귀촌의 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도시민 농촌이주 규모의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귀농·귀촌자 개인특성별 의사결정요인을 집단간 평균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도

시압출요인에서 귀농·귀촌자들은 도시의 사회적 요인 중 도시의 삭막한 인간관계와 환경적 요인 중 환경오염 문제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농촌흡인요인에서 귀농·귀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은 자연환경과 건강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높았고,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연고지 요인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적 요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요

(표 11) 지역별 귀농·귀촌자의 의사결정 영향요인

요인	측정변수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봉화군*	의성군	청도군
도시압출요인	경제	일자리부족			+		
		사업실패			-		
		퇴직	+	+			+
	환경	높은 물가					
		주택문제	+				-
사회	교육문제					+	
	인간관계					-	
농촌흡인요인	경제	농업전망 기대	-	-	-		
		친환경 농업					-
		영농승계		+	+		+
	환경	생태적인 삶					
		건강에 도움	-		+		
사회	쾌적한 자연환경		+				
	연고지		+	-		+	
정책적 요인	교육문제	교육문제		-			-
		농촌생활권유			+		
		정부정보제공					
		행정절차간소화					
교육훈련의 도움	교육훈련의 도움		+				
	농촌정착지원		+			-	
영농활동지원	영농활동지원		-			+	

주. \*는 참조범주임.

인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지역별로 의사결정요인을 보면, 영주시는 도시압출요인(퇴직, 주택문제)에 의하여 귀농·귀촌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천시는 도시압출요인(퇴직), 농촌흡인요인(연고지, 교육문제(-), 농업전망에 대한 기대(-), 영농승계를 위하여), 정책적 요인(교육훈련의 도움, 농촌정착지원, 영농활동지원(-))이 상호작용하여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도시압출요인(일자리부족, 사업실패(-), 교육문제), 농촌흡인요인(건강에 도움, 연구지(-), 농촌생활에 대한 권유), 의성군은 농촌흡인요인(연고지, 친환경농업(-), 영농승계), 정책적 요인(영농활동지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도군은 도시압출요인(주택문제, 교육문제, 인간관계), 농촌흡인요인(교육문제(-), 영농승계), 정책적 요인(농촌정착지원(-))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볼 때 연구대상지역의 귀농·귀촌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사회적 요인인 연고지 혹은 영농승계를 위하여 귀농·귀촌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천시, 의성군, 청도군의 경우는 영농활동지원이나 농촌정착지원과 같은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 론

본 연구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개인특성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과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의 유사성을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범주를 재분류하였다. 조사는 2003년 이후 귀농·귀촌가구가 9,348가구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6개 시·군(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확장한 개념인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기준범주는 6개 시·군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인 봉화군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 6개 시·군의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귀농·귀촌을 결정짓는 의사결정요인으로 도시압출요인은 전체 평균이 2.31, 농촌흡인요인은 전체 평균이 2.93, 정책적 요인은 전체 평균이 2.18로 나타나

귀농·귀촌을 결정짓는데 도시압출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정책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영주시를 선택한 귀농·귀촌자들의 의사결정요인은 직장 퇴직, 주택문제, 건강, 농촌의 장래 전망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의 영향요인은 직장퇴직, 고향으로 귀향, 자녀의 농촌교육, 농촌의 장래 전망, 영농승계,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되어, 정부의 영농활동 지원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도시의 일자리 부족, 사업실패, 자녀의 교육상 문제, 건강, 고향으로 귀향, 농촌생활에 대한 주변의 권유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고향으로 귀향, 친환경 농업, 영농승계, 정부의 영농활동 지원으로 나타났다. 청도군은 주택문제, 자녀의 교육상 문제, 도시생활의 부정적 요인, 자녀의 농촌교육, 영농승계, 정부의 농촌 정착 지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대상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먼저 도시압출요인과 농촌흡인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안에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귀농·귀촌 의사결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목적으로 귀농·귀촌을 결정한 가구가 많고, 다음으로 교육과 인간관계 또는 연고지로의 회귀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귀농·귀촌자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기대하고 귀농·귀촌을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 조사대상의 귀농·귀촌 시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요인의 영향정도를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조사범위를 경상북도 내로 한정하였고 지역별로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1.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2.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3. 김상균. (2012). 중고령 귀농인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성수 외.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11(1), 53-65.
5.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2년)귀농·귀촌인 통계.
6. 류성호. (2001). 지역특성에 따른 인구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박공주.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박공주 외.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9.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박은경. (2008). 귀농인의 이주만족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서규선, & 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12. 서규선, & 박덕병. (1999).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작목별 선진농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1(3), 1-18.
13. 성주인, & 송미령.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성주인 외.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_\_\_\_\_. (2012).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가치의 재발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손능수, & 이재모. (2012). *경상북도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와 정책 방안*. 대구: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보고서.
17. 송미령 외.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오수호. (2012).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우중현. (1997). 귀농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99-113.
20.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34, 23-41.
21.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5(3), 139-153.
22. 이민관. (2011). 중소도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이상용. (1999). 귀농인 의식실태 및 안정적 정착방안. *연구와 지도*, 40(6), 35-41.
24.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이희찬, & 김현. (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3.
26.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장동현. (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3), 19-32.
28. 정일홍, & 이성우. (2010).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과 공간적 선호. *농촌사회*, 20(2), 163-190.
29. 정철영. (1999). 농업인력의 육성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1(2), 111-137.
30.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도시와 빈곤*, 34, 42-47.
31. 조혜중. (2006). *새인구론: 인구의 공간적·사회적 접근*. 서울: 푸른길.
32.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대전: 통계청.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업전망 2011 보고서*.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34. Bogue, D. J. (1969). *Principles of demography*. New York, John Wiley.
35. Borjas, G. J. (1989). Economic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457-485.
36. Boyle, P., Halfacree, K., & Robinson, V. (1998). *Exploring contemporary migration*. London: Longman.
37. Graves, P. E., & Linneman, P. (1979). Household migr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 383-404.
38. Goss, E. P., & Schoening, N. C. (1984). Search time, unemployment, and the migration decis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4), 570-579.
39. Goss, E. P., & Paul, C. (1990). Union membership, economic rents, and migration behavior, *Journal of Labor Research*, 11(3), 347-355.
40. King, R. (2012). *Theories and typologies of migration: An overview and a primer*. Willy Brandt Series of Working Paper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Malmö: Malmö University.
41.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42.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3. Samers, M. (2010). *Migration*. London: Routledge.
44. Schwartz, A. (1973), Interpreting the effect of distance o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5), 1153-1169.
45. Sjaastad, L. A.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1), 80-93.
46. White, P., & Woods, R.(1980). *The geographical impact of migration* (eds). London: Longman.

---

Received 24 February 2015; Revised 13 June 2015; Accepted 02 June 2015



Dr. Seong-Ho Woo is a president of Younju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in Korea. He got a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at Yeungnam University in Korea. He is a interested in Migrants Returning to Farm and Rural.

Address: Yeongju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12, Yeongju-ro 231beon-gil, 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wsh0088@naver.com  
 phone) 82-54-636-7567



Dr. Seong-Keun Lee is a professor of Regional Development &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at Yeungnam University in Korea. His major is Urban & Regional Planning. He is interested in Regional Economy, Regional Planning, and Public Investment Analysis.

Address: Regional Development &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280, Daehak-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SKL2682@ynu.ac.kr  
 phone) 82-53-810-2682